

생명의 말씀

얼마나 아프셨나?

(요 19:17~30)



이인규 목사

- 교단 서기 역임
- 경기서지학회 중경회장
- 아세아순복음교회 담임

우리 주님의 생은 고난의 생으로 일관되어 있습니다. 육신을 입고 땅구유의 탄생으로부터 해뿔의 칼날을 피하여 애굽에 피난한 것, 나사렛에서 목수 생활로 성장한 것, 삼년의 공생애의 고생, 최후의 십자가의 고난 등 모두 고난으로 일관된 삶이었습니다.

에 대해서 불안하고 슬퍼하며 고민하였습니다.

요 8:57에 "유대인들이 가로되 아직 오심도 못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고 삼십세 된 예수를 오심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아 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 계실 때 영 육간에 병든 자를 위해 동정하시며, 죽어가는 자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시사 애통을 쓰시고 슬픔을 위로하시기 위해 온 힘을 다 기울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의 육체는 피곤하고 쇠약해져서 마치 오십살이나 된 것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더욱이 십자가의 죽음을 앞둔 주님은 이루 말할 수 없이 고민이 컸던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 사순절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 앞에서 이렇게 고민하시는 인성의 주님을 바라보아야 하겠습니다.

2. 진액을 흘리시며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고난을 바라봅시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하시고 돌 던질 만큼 더 가셔서 무릎 꿇고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아버지여 만일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미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였습니다.

주님은 극도의 고통과 함께 간절하게 힘쓰고 애써 부르짖으신 것입니다. 이때

주님의 몸에서는 진액이 빠져는데 땅에 떨어지는 땀이 핏방울같이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힘쓰고 애써 간절하게 기도하실 때 흐르는땀에 피가 함께 섞여 나온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 이 탁한신 백성들의 죄 짐을 대신 지기 위하여서 그 몸에서는 생명의 액체를 쏟으신 것입니다.

주님의 수난의 기록 중에서도 가장 애쓰시고 슬퍼하시던 때는 이 갓세마네 동산의 밤인 것입니다. 얼마나 애써서 기도하셨기에 그렇게 뜨겁고 진한 땀이 피와 같이 흘러 내렸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생각할 바가 있습니다. 우리들도 힘써서 사명 감당하기 위해, 나라와 민족의 자유민주평화통일과 복음화를 위해, 교계와 교단을 위해, 교회와 이웃을 위해 간절히 눈물과 진액을 짜내는 기도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3. 험한십자가를 처절하게 지고가신 주님의 고난을 바라봅시다.

갓세마네 동산에서 로마 군병들에게 잡혀가신 주님께서 빌라도의 법정에서 빌라도에게 사형언도를 받으신 후에 흉포를 입으시고, 빌사의 가시관을 쓰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갈보리를 향하여 가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가신 그 길은 험한 길이었습니다. 갓세마네 동산에서 밤새워 피땀 흘려 기도하신 주님은 이미 육신적으로도 기진맥진한데다 법정에서 갖은 고문

으로 몸은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진 몸이었을 텐데 거기에는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니 넘어지고 쓰러지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더 이상 기실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을 본 로마 병정은 구레네 시몬을 붙잡고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가게 했습니다.

구레네 시몬은 억지로 십자가를 졌으나 분명히 주님께 도움이 되었고, 또한 그 자신과 가정에는 구원을 받고 축복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온 인류 구원을 위하여 쓰러지고 넘어지면서도 처절하게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바라봅시다.

4. 십자가에 달려 극한의 고통을 당하시는 주님을 바라봅시다.

마침내 주님은 골고다에 이르러 십자가에 달려가 되었습니다. 그의 머리는 가시 면류관 때문에 선혈이 흐르고 손과 발에는 못이 박혔으니 그 고통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군병들은 그것도 부족하여 주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러 십자가에 파열되게 했습니다. 우리는 눈을 감고 십자가 위에서 당하신 주님의 고통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못에 박힌 주님의 손은 소경의 눈을 어루만지면서 소경을 뜨게 하였던 손이요, 그 손은 어린아에게 안수하시며 축복하신 손이며, 각색 방지를 고쳐 주시던 손이요, 죽은 자를 살리신 손이요, 오천 명

을 먹이신 손입니다. 축복과 은혜를 주시던 그 손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또 못에 박힌 주님의 발은 어떤 발이었습니까? 사랑하는 자들이 죽었다는 비보를 듣고 찾아가신 발이요, 죄인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려 다니신 발이며,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기도하시려고 한적한 곳을 찾아가신 발입니다. 이 귀한 발에 못을 박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옆구리까지 찔릴 당하신 주님의 고통은 어떠하였겠습니까? 이 십자가의 고통은 하나님의 어떤 양이 피를 흘리며 하나님 앞에 속죄 제물이 되시는 엄숙하고도 거룩한 장면입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처절한 모습을 바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 짐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극한의 고통당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회개와 감사의 눈물을 흘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고난당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평화와 치유의 은총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들이 화목하게 되었으며, 죄로 인한 병든 우리의 영혼은 나음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만 바라본다면 세상의 욕심, 세상의 환난을 극복해 나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곤해도 낙심치 않으며 죽도록 충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양적인 기독교 언론과 단체를 비방하고 명예를 훼손하므로 법정에서 그 동안의 잘못을 심판 받은 상황이 된 것이다.

뉴조는 자신들의 언론 소개에서 거창하게 4대 비전을 제시한다. 그 내용은 교회일치의 길잡이, 교회 개혁의 나침반, 평신도의 작은 등불, 교회와 세상의 가교역할을 말한다. 그러나 뉴조는 한국교회를 계속 흔들고 있고, 그들의 복음적 가치와 올바른 신앙적 자세에 대한 나침반은 고장 났으며, 교회와 세상으로 나아가는 가교(架橋)를 끊어놓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여기에 이념 편향적이고 보편타당한 인권을 도외시하는 보도 행태는 길 잃은 언론의 표상이라 아니할 수 없다. 뉴조가 올바른 기독교 언론의 목적과 비전을 성취하려면, 지금의 반기독교, 다원주의, 친동성애적 보도 행태를 버려야 한다. 그렇지 않고는 '기독교 언론'이라는 건판을 내려놓아야 마땅하다.

동정

한국교, 코로나시대 기도요청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권태진 목사)이 성명을 내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해결을 위한 교계와 사회의 협력, 한국교회의 기도를 요청했다. 한국교회는 성도들을 향해 "신종 코로나로 인해 치료중인 모든 사람들이 무사히 완쾌되고 이 위기를 모든 인류가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요청했다.

태국 치앙마이 나사렛해외봉사단



나사렛대학교(총장 김경수는)는 지난 1월 13일(월)부터 22일(수)까지 10일간의 여정으로 태국 치앙마이 지역에 있는 학교들을 방문해 교육봉사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나사렛대학교는 모든 재학생들이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글로벌 나눔 품성교류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장만희 한국 구세군 사령관 취임



장만희 한국 구세군 제20대 신임 사령관이 지난 1월 6일(월) 취임했다. 장 사령관은 미국 캘리포니아 등에서 구세군 성안재활센터(ARC) 대표를 지낸 중독치유 전문가다. 장 사령관은 "소외된 중독자와 노숙인에게도 하나님 자녀로서의 특권을 전하는 게 구세군의 사명"이라고 말했다.

고신대복음병원 해외 의료선교



고신대복음병원(병원장 최영식) 해외 의료봉사팀은 지난 1월 15일(수)부터 29일(수)까지 페루와 필리핀에서 의료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들은 15년째 이 지역을 방문하여 의료봉사를 하고 있으며, 의료봉사팀 신성훈 교수(혈액종양내과)는 그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해 '제9회 종근당 존경받는 병원인상'을 받은 바 있다.

논평 한국교회언론회

'뉴스앤조이' 를 보면 즐겁지가 않다

한국교회를 개혁하기 열망한다는 목적으로 창간되어, 지난 20여 년간 한국교계에서 활동해 온 '뉴스앤조이' 대표 강도현, 이하 뉴조가 지층수를 두어 위기를 맞고 있다.

뉴조는 그 동안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는 일을 한다며, 한국교회의 어두운 면을 고발하는 언론 운동에 열의를 다해 왔다고 주장한다. 또 건강한 목회와 바른 신앙을 확산하는 사역을 하겠다고도 한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한국교회를 허물고 깎아내리며, 한국교회 망신 주기를 통해서, 그들 나름대로의 즐거움(news & joy)을 누리려다.

독교 정서와 맞지 않고 무엇보다 성경에 반하는 주장들을 통하여 한국교회를 혼란케 하였다. 특히 동성애를 옹호하고, 동성애와 젠더를 차별하지 말라는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반동성애 세력을, 가짜뉴스 배포 및 유동한 세력으로 지목하여 보도한 것은 큰 과격이다.

이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지난 15일, KHIV, GMW 연합, 그리고 한국 가족보건협의 대표에게 뉴조가 각각 1천만 원씩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의 판결은 반동성애 활동을 하는 언론 및 활동자를 '가짜뉴스 배포자'로 지목한 것은,

언론의 감시·비판·견제라는 정당한 언론 활동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겠다.

뉴조의 이런 빛나간 활동에 대하여 교계에서는 이미 여러 차례 경고 및 우려를 표명 한 바 있다. 지난 2018년 12월에는 <한국교회수호결사대>가 뉴조언론이 앞에서 규탄대회를 통하여 그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며칠 뒤에는 <동성애동성혼란대국민연합>이 뉴조를 '한국교회를 향하여 작은 비리에도 혹독하게 비난하고 비판하며, 자신의 비리에는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질타하였다. 또 '교회를 해체시키려는 포스트모더니즘에 기반한 젠더이데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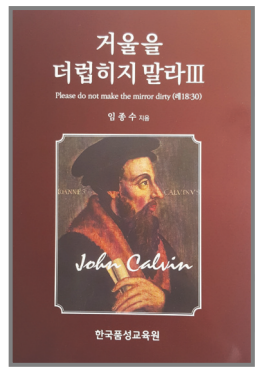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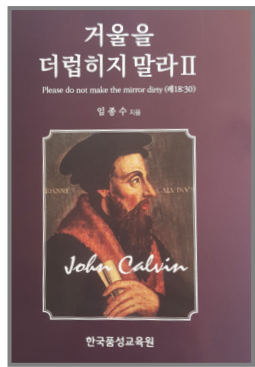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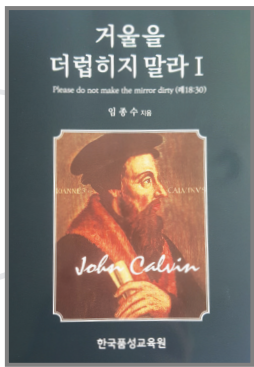
로기를 강력히 주장하는 언론이라'고 비판하였다.

급기야 지난해 해 중교단의 정기총회에 장 합동, 예장 고신, 예장 합신)에서는 뉴조의 반기독교성과 동성애 옹호 문제 등에 대하여 교단차원에서 조사하기로 결의하였다.

그리고 지난 해 1월에는 <살롱나베>가 논평을 통하여, 교회를 비방하고, 주체사상을 옹호하고 동성애를 옹호하는 논조를 견지하는 언론이 기독교 언론이라고 할 수 있는가? 라는 강한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뉴조는 이런 보도 관행을 바꾸지 않고 있다. 양심적이고 신

믿음은 구원으로 인도하고 품성은 행복과 성공으로 인도한다



품성은 성공과 행복의 열쇠이다. 품성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올바른 일을 하고자 하는 내적 동기이다.

한국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는 이유는 영적인 면만 강조하였고 육체를 가진 인간의 삶에 대해서는 등한시하여 삶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철야 기도를 마치고 귀가하면서 남의 발에 고추를 따가는 생활이 그 대표적인 이야기이다. 그래서 저자가 예수님의 품성을 닮아가는 영적훈련을 해야 하겠다는 마음으로 품성에 관한 책자를 7권 출판하였다. 최근에 출판된 '거울을 더럽히지 말라' 1,2,3권을 소개한다.

강의 안내

각 교회에서 시행되는 각종 중직자 세미나 각 지역에 거주하는 목회자들의 소 구름

책 구입처

cslim4305@gmail.com 임종수 원장
재무담당 이미란 이사 010-8618-9982
계좌번호 농협 351-0771-1742-13
한국 품성교육원

제1권 품성과 비슷한 덕목인 성격, 덕성, 인격, 개성을 바울은 어떻게 개발하였는가? 이조 500년 유교와 고려 500년 불교가 만들어낸 윤리 도덕이 무엇인가? 기독교의 윤리부문 7가지와 자기 계발의 부문에 필요한 10가지를 논하였다.

제2권 대인관계 부문 10가지와 신사적인 성도가 되기 위한 품성 4가지와 문제해결을 하기 위한 품성과 더 좋은 것과 가장 좋은 품성이 무엇인가를 논하였다.

제3권 부정적인 품성 6가지와 영적전쟁의 품성 10가지와 신자가 물리쳐야 할 세력들 즉 점과 굿, 자살, 인종차별과 이단척결을 논하였고, 올바른 생활을 위한 실천분야 5가지를 논하였다. 만약 이 책을 매일 한 과씩 훈련한다면 훌륭한 신자가 될 것이다. 곧 새 언약과 품성과 자유의 대 헌장 두권이 출판 될 것이다.